



10년

외부축제, 글로벌 축제로 '첫발'

2024년 10월 10일 목요일 (음 9월 8일) 제3599호

전주매일

www.jjmaeil.com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대표전화 (063)288-9700



우범기 전주시장(사진 가운데)이 지난 8일 전주천년한지관에서 전주한지산업 육성 계획 관련 브리핑을 열고 향후 비전을 설명하고 있다.

전주한지 정체성 재정립

우범기 시장, 한지산업 육성 마스터플랜 제시
3대 전략·7대 주요과제
17개 실행계획으로 구성
국내산 한지 원료생산 확대
계승인력 양성 등 추진키로
글로벌 교류 활동도 재개

시는 비전 아래 △품격 있는 전통 한지 △성장하는 기계한지 △상생하는 전주한지의 3대 전략과 7대 주요 과제, 17개 실행 계획으로 구성된 '전주한지산업 육성 마스터플랜'을 제시했다. 특히 시는 한지 관련 풍부한 인적·물적 인프라의 이점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산발적인 정책 투입으로 인해 그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향후 더욱 과감한 지원을 통해 한지 산업 기반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시는 전통의 품격을 높이고 보존·계승하기 위한 과제인 '품격있는 전통한지' 구현을 위해 △전통한지 계승 인력 양성 △국내산 한지 원료 생산 확대 △전통한지의 프리미엄 전략 강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대표적으로 시는 산업 위기를 맞은 제조 현장에 직접 투입할 수 있는 후계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체계적인 한지 제조인력 양성을 위한 3개년 과정의 한지 제조 교육시스템을 운영키로 했다. 또한 시는 기계한지 기반을 뒷받침하기 위한 혁신과 성장도 지원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시는 기계한지가 일반 종이시장과 비교해 가격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산·학·연 기술 협력을 강화하고, 주력 및 스타상품 개발을 지원한다. 여기에 시는 한지산업의 체계적인 외연 확장을 위해 글로벌 교류 활동도

재개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세계 복원시장 공략을 위한 해외 문화유산 보존 전문가 등 초청 체류형 프로그램 △해외 상설홍보관 전시 및 입점 기업 지원 △△중이박람회와 K-컬처 박람회 등 세계적인 한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의 해외 진출 역량에 따른 맞춤형 지원 등이다. 이와 함께 시는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상생하는 전주한지' 구현을 위해 전통한지의 전승과 보존, 유통과 소비의 중추 공간이자 지속가능한 한지 거점인 'K-한지마을'을 구축해 한지산업의 자생력을 키우기로 했다. 또, 한지마을과 확산 치유의 숲과 연계한 다나무군락지를 조성해 다나무의 가치를 공유하고 관광 자원화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시는 전주를 중심으로 완주·부안·익산 등 도내 한지 유관기관 상생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국내 12개 한지도시와 공동 발전을 목표로 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한지 문화 및 산업 교류에 앞장서는 한지로드의 중심지로 도약하기로 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한지는 우리 민족의 기록문화의 토대로서, 대한민국 문화원형의 뿌리"라며 "전주시는 천년한지의 본향으로서 전주한지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고 한지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해 '전통을 잇고, 혁신을 더해, 세계로 도약하는 한지도시'로 힘차게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육기 기자

새만금 신항, 부두만 있는 '반쪽짜리 개항' 우려

2026년 2선석 우선 개항 1년여 앞두고 배후 부지 재정 전환 미확정
새만금 방조제·배후 부지 사이 수로 매립해 확장해야 의견 제기

새만금 신항 2026년 2선석 우선 개항 1년여를 앞두고, 배후 부지 재정 전환이 확정되지 않아 부두만 있고 배후 부지는 없는 반쪽짜리 개항이 우려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 사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새만금신항 2026년 2선석 우선 개항을 앞두고 배후 부지 국가재정 전환에 대한 예산 확정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원택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도 새만금 배후부지 1-1단계 재정전환을 계속적으로 요구했고, 해양수산부가 기재부와 논의하고 있지만 재정 전



환에 대한 예산 확정이 지연되고 있다. 아울러, 새만금 방조제와 배후 부지 사이 수로를 매립해 배후 부지를 확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새만금 신항 초기 계획(2010년)에는 2~3만톤 부두 규모가 아적장 폭 200m, 배후 부지 폭 800m였지만, 2019년 5만 톤급 부두 규모로 변경되면서 아적장 폭이 400m로 늘어나고, 배후

부지 폭이 600m로 줄어들어 수로 매립을 통한 배후 부지 확장이 논의되고 있다. 수로 매립을 통한 배후 부지가 확장되면 약 65만평의 배후 부지가 추가 확보되어, 민간기업 유치 및 신항 경쟁력 강화로 경제적 가치가 상승할 전망이다. 이원택 의원은 "2026년 우선 개항 시 부두만 있고, 배후 부지는 없는 반쪽짜리 개항이 우려된다"며, "배후 부지 재정전환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방조제와 배후부지 사이 수로를 매립하고 배후 부지를 확장해 새만금 신항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며 "배후 부지 확장을 위해 해수부, 환경부, 기재부 등을 적극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훈민정음 반포 578돌

한글의 아름다움, 전복서 다시 피어나다

'도민과 함께하는 한글큰잔치' 성료

한글 유공자 표창·성인문해 공모 시상식 진행
외국인 받아쓰기 대회 등 문화·체험행사 다채

한글의 아름다움이 전북에서 다시 피어났다. 전북특별자치도는 9일 훈민정음 반포 578돌을 기념해 도청 야외공원에서 2024년 도민과 함께하는 한글큰잔치를 개최했다. (관련사진 3면) 이번 행사는 한글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알리고, 도민과 외국인 유학생이 함께 즐기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꾸며져 한글날의 의미를 더욱 빛냈다. 전북도립국악원 어린이교향악단의 식전 공연으로 시작된 한글큰잔치 행사는 박기범 전주대학교 국어문화원장의 개회사와 함께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문승우 전북자치도의회 의장, 서거석 교육감의 영상축사, 그리고 윤찬영 전주대 부총장의 축사로 이어졌다. 이와 더불어 한글 유공자에 대한

표창과 성인문해학습자 공모전 시상식도 함께 열려, 한글 교육과 문해 학습에 헌신한 이들의 노고를 기렸다. 한글 유공자 표창은 전주주부평생 학교 박영수 교장과 전주시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이새롬 팀장이 수상했으며, 이들은 비문해 저학력자의 문해 교육과 다문화 가족들의 한국어 교육을 위해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성인문해학습자 공모전에서는 완주군 진달래학교의 홍옥임 씨가 최우수상을 포함해 8명의 학습자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날 행사는 △부채 퍼포먼스와 △전주 기찻길이 공연 △문장을 담은 열쇠고리 만들기 △마카롱에 문장 적기 △예쁜 순우리말로 연필꽂이 꾸미기 등 남녀노소 누구나 참

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행사로 이어져 도민과 외국인 유학생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이 되었다. 행사 후반부는 도내 외국인 유학생들이 참가한 '외국인 받아쓰기 대회'가 큰 관심을 끌었다. 유학생들은 우리말 상식과 한국 문화, 전복의 역사와 관련된 단어와 문장을 받아쓰며 국어능력을 높이는 동시에 전복을 알아가는 소중한 경험을 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영상축사를 통해 "소중한 한글의 의미와 가치를 이번 한글큰잔치를 통해 다시 한번 되새기길 바란다"며 "도민 여러분께서도 한글의 아름다움을 지키고, 우리말과 우리글을 더 많이 사랑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일에는 전주대학교 성원홀에서 '한글로 만드는 한국어 인공지능 시대를 주제로 한 학술행사가 열려, 한글을 활용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이만호 기자

부안군
축! 전주매일 창간

안전한 지구를 위해 꼭!! 기부하세요!

부안고향사랑기부

기부금액

개인별 연간
500만원 이내

기부자 혜택

세액공제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6.5%공제

답례품 기부금액의 30%내 지역특산품 등 제공

기부방법

온라인 고향사랑e음 (http://www.ilovegohyang.go.kr)

오프라인 NH농협은행(농축협포함)

문의 063-580-4938

홈페이지 바로가기

봉봉이와 함께~